

# 최수종 “최불암 선생님 발자국 뒤따라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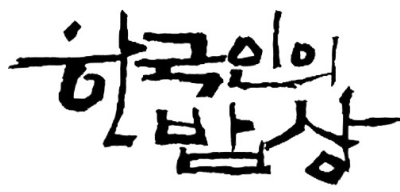
“제게 꿈이 있다면, 최불암 선생님이 지켜오신 15년 그 이상의 시간을 이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것입니다.”(배우 최수종)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한 끼 밥상 위에서 풀어낸 교양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이 어느덧 700회를 맞는다.

지난 14년간 프로그램을 이끌어온 배우 최불암에게 바통을 이어받은 새 진행자 최수종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에서 열린 ‘한국인의 밥상 700회 기간담회’에서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을세라 조심하면서 그 발자국을 뒤따라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의 밥상’ 하면 최불암 선생님이고, 선생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처음부터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기보다 ‘한국인의 밥상’이 최수종화 되도록 하나하나 익히면서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인의 밥상’은 지역 대표 음식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역사, 문화 등을 아름다운 영상과 깊이



14년 진행 최불암 이어 새 진행자 낙점  
임기순 PD “무계감·친밀감 갖춘 적임자”

있는 취재를 통해 매주 한편의 ‘푸드멘터리’로 꾸며내는 프로그램이다.

맛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전통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인의 밥상’이 처음 방송된 2011년 1월부터 MC 자리를 지켜온 최불암은 “이제 든든한 후배에게 (자리를) 물려주고자 한다”며 699회를 기점으로 물러났고, 700회부터 최수종이 새로운 진행자로 나선다.

최수종은 “이제까지 4년의 촬영을 진행했는데, 하루 평균 이동 거리가 900km가 넘는다”며 “최불암 선생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년의 촬영 동안 총 8곳의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맛본 음식들은 다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음식이었다.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경험이었다”고 돌아봤다.

최수종은 ‘한국인의 밥상’ 촬영 도중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갑자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아흔이 넘는 어르신들이 ‘내가 죽기 전에 최수종 당신을 보니 행복하다’는 말이 참 감동이 됐다”며 “역사에 관심이 많다는 한 초등학교생이 ‘강감찬 장군님(최수종이 드라마 ‘고려거란전쟁’에서 연기한 인물) 사인해주세요’라며 반겨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불암 선생님이 아버지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만나셨다면, 저는 아버지, 아들, 삼촌, 이웃집 형이나 오빠의 역할도 해내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기획 및 연출을 총괄하는 임기순 PD는 “최불암 선생님이 프로그램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여서 하차 의사를 밝혔으셨을 때 저희 제작진은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많이 애썼다”며 “그런데도 선생님의 뜻이 워낙 강하셔서 후임자를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고, 따뜻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을 새 진행자로 모시고 싶었다. 깊이와 무계감, 친밀감을 고루 갖춘 최수종 씨가 최고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설익은 과일은 맛이 쓰다고 하고, 잘 익은 건 단맛이 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인의 밥상’은 오래 기억에 남고, 찾게 되는 감칠맛 나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임기순 PD) /연합뉴스



## 뉴진스 “함께 즐겁게 보내는 시간 을 것”

SNS ‘NJZ’ 대신 멤버 이니셜 딴 ‘mhdhh\_friends’로 계정 교체

전속계약 분쟁의 여파로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한 걸그룹 뉴진스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팬들을 통해 힘을 얻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버니즈’(팬덤명)와 소통할 때 제일 많은 힘을 얻는다”며 “‘버니즈’가 보내준 편지가 정말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이 그룹은 “‘버니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도 전했다.

뉴진스는 독자 활동명 ‘NJZ’ 대신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영문 이니셜 앞 글자를 모은 것으로 추정되는 ‘mhdhh’와 ‘프렌즈’(friends)를 합친 ‘mhdhh\_friends’라는 계정으로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뉴진스는 작년 10월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단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멤버들은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다. 뉴진스는 지난달 24일 잠정 활동 중단을 전격 선언한 바 있다.

뉴진스는 “‘버니즈’가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버니즈’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린 하나도 힘들지 않다”며 “우리 모두 함께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팬들을 향해 “사랑해요 ‘버니즈’”라고 애정을 드러냈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고, 9일 비공개로 심문기일이 열렸다. 멤버들은 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 3.7%로 출발

1년차 레지던트 모습 담은 tvN 새 드라마… ‘보물섬’ 15.4%로 종영

1년 차 레지던트의 풋풋하고 열정 넘치는 모습을 담아낸 tvN 새 주말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생활’(이하 ‘언슬전’)이 시청률 3%대로 출발했다. 13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방송된 ‘언슬전’ 첫 회 시청률은 3.7%로 집계됐다.

전날 방송에서는 종로 율제병원 산부인과 1년차 레지던트 오이영(고윤정 분), 표남경(신시아), 엄재일(강유석), 김사비(한예지)의 파란만장한 첫 출근이 그려졌다.

빛을 갇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오이영, 의사 시절부터 국가고시까지 1등을 도맡은 김사비 등 각자 다른 개성을 내세운 네 청춘의 모습이 흥미를 끌었다.

첫 직장 생활에 발을 들인 레지던트들의 고군분투하는 모습도 보는 재미를 더했다. 처음 들어가는 수술실에서 바짝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연발하기도 하고, 질문을 쏟아내서 선배의 분노를 부르는 등 열심히 하지만 어딘가 어설픈 주인공들의 모습이 공감을 자아냈다.

한편 같은 날 최종회를 방송한 SBS 드라마 ‘보물섬’은 자체 최고 시청률인 15.4%로 종영했다.

전날 방송에서는 서동주(박형식)가 마침내 악인 염장선(허준호)을 상대로 복수에 성공하는 모습이 담겼다.

서동주는 염장선을 습격해 그를 대산그룹 비자금 금고 안에 감금하고, 직접 대산에너지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다. 그러나 복수에 성공했음에도 서동주는 여전히 불안감에 시달리고, 엔지 모를



허탈한 감정에 휩싸인다.

서동주는 염장선에게서 전 재산 기부 각서를 받아낸 뒤 그를 풀어주지만, 결국 염장선은 경찰에게 체포돼 죄값을 치르게 된다.

드라마는 서동주가 연인이었던 여은남(홍화연)에게 비자금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으로 막을 내렸다.

‘보물섬’은 비상한 능력을 갖춘 주인공 서동주(박형식 분)가 출생의 비밀을 파헤치면서 자신을 제거하려는 악의 세력에게 조금씩 복수의 칼날을 갈아가는 과정을 긴박감 있게 펼쳐내며 입소문을 탔다.

올해 2월 시청률 6.1%로 시작해 4회 만에 10% 벽을 넘었고, 6회부터 줄곧 두 자릿수 시청률을 유지했다. SBS 드라마 가운데서는 지난해 방영된 장나라 주연의 ‘굿파트너’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이다. /연합뉴스

## KBS2 새 일일극 ‘여왕의 집’

28일 첫 방송… 함은정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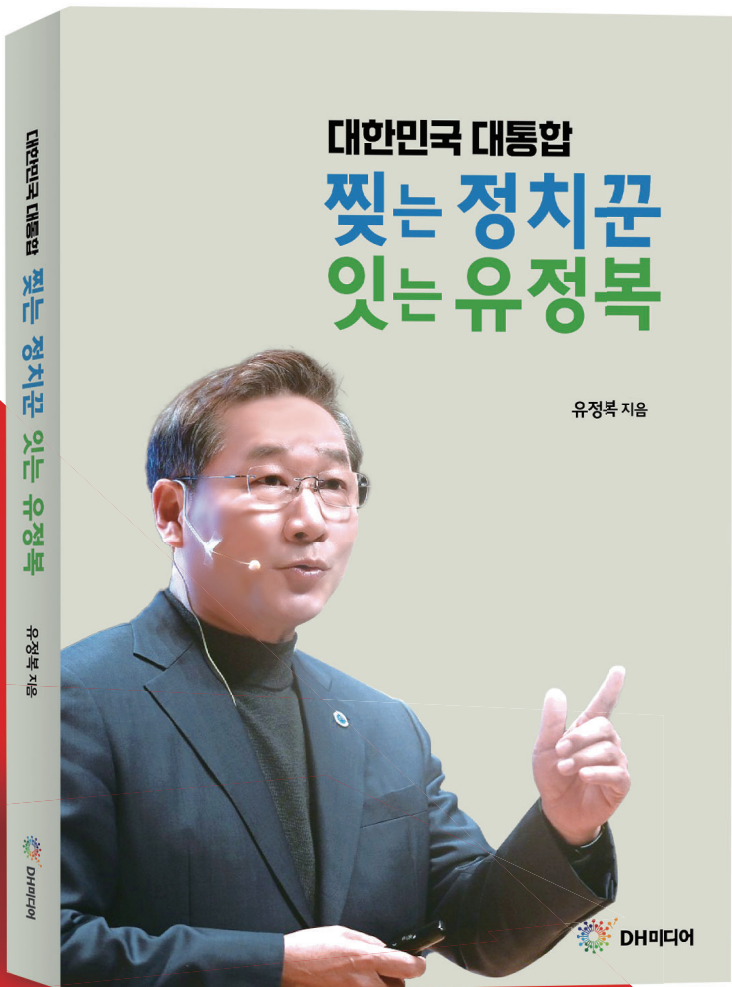
KBS 2TV 일일드라마 ‘신데렐라 게임’의 후속 드라마 ‘여왕의 집’이 28일부터 방영된다.

‘여왕의 집’은 완벽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던 한 여자가 인생을 강탈당한 뒤 복수를 벌이는 이야기를 담았다.

행복한 삶을 살다가 남편을 빼앗기고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는 강재인 역할은 가수 출신 배우 함은정이, 친구의 모든 것을 가져가려는 욕망으로 가득 찬 강세리 역은 이가령이 연기한다.

‘오! 삼광빌라’의 홍석구 PD, ‘순정복서’ 흥은미 PD가 함께 연출을 맡고, ‘내일도 맑음’의 김민주 작가가 각본을 쓴다. /연합뉴스

깨·능·통 깨끗하고 능력있는 통합의 리더



# 천원주택 인구도 잡고 경제도 잡았다!

